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덕숭총림의 원융살림을 보고

4월 2일. 충남 예산 덕숭산은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 봄의 전령들과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로 생기를 띠었다.

오전, 100여 명의 스님들은 수덕사에서 삼삼오오 정혜사로 올라와 '만공 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에 동참했다. 이어 덕숭총림 수좌 설정 스님과 유나 우송 스님, 주지 옹산 스님을 필두로 대중들은 다정한 형제처럼 줄을 지어 안행(雁行)하며 경허 선사와 그의 세 제자인 수월 만공 혜월 스님의 진영이 모셔진 금선대와 만공선사부도탑을 참배하며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되새겼다.

이날 오후, 수덕사 황하정루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덕숭총림 제4대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다. 만장일치로 제4대 방장에 설정 스님을 추대하기까지의 산중총회 회의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향됐다.

이날 두 법회를 지켜보며 '한국불교에도 산중공의제가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선거과정에서 분규와 갈등을 거듭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심지어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법(傳法)을 생명으로 하는 총림의 방장 추대과정에서 조차 잡음이 나왔던 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각급 선거를 위한 산중총회가 문중간의 알력이나 종권 다툼으로 고함과 설전이 오고 가는 현실에서 덕숭총림의 산중총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덕숭문중 큰스님들의 지도하에 본사주지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번도 잡음이 없었다 하니 '선의 종갓집(禪之宗刹)' 다운 아름다운 가풍이 아닐 수 없다.

100세 고령에도 미국 서부 능인선원 봉불식에 참석하며 해외포교에 힘썼던 초대 방장 혜암 스님, 한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법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제2대 방장 벽초 스님, 선농일여(禪農一如)의 가풍 아래 천진한 웃음과 서도(書道)로 말없는 법문을 설했던 제3대 방장 원담 스님. '명리를 모두 버리라(名利共休)'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준 역대 선사들이 있었기에 덕숭총림의 원융살림은 어느 총림보다 원만했던 것이다.

올해 말 예정인 조계 ·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벌써부터 큰 이슈로 떠오른 요즘, 만공 스님의 불멸의 법어 '세계일화(世界一花)'가 떠오른다. 세계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한 송이 꽃으로 만들기에 앞서 승단의 대중부터 한마음이 되는 산중공의제의 실현을 위해 스님들의 크나 큰 각성과 발심을 기원한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

승효상씨 설계… 4월 21일 오전 11시 개관식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

템플스테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한국의 여행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을 알리는 대표브랜드로 떠오른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커져 왔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의 공사를 마치고 4월 21일 개관식을 봉행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일주문 건너편에 건립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는 8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23만1456㎡(692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다.

지하 1층은 전국템플스테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전이 열리며, 지상 1층에는 북카페와 홍보관이, 2층에는 전통찻집이 마련됐다. 3층은 템플스테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관, 4층은 템플스테이 사무국, 5층은 전통사찰음식체험관 '바루'가 운영된다. 또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져 일반에 개방한다.

통합정보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씨가 설계했다. 승씨는 통합정보센터의 외형은 현대적 감각과 전통미를 표현해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과 조계사를 잇는 매개체로 삼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공간개념 구현에 역점을 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그 매력에 빠져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사동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들러 차도 마시고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개관식은 21일 11시에 개최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개관식은 건축물에 대한 설명, 사찰음식 체험의 시간, 축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상임조사위 전격 해체

보우승가회, "종정스님 유시로 해체" 발표

태고종 '종단 현안 타개를 위한 상임조사위원회(위원장 도산, 이하 조사위)'가 전격 해체했다.

보우승가회는 4월 9일 "종무원측에서 혜초 종정스님의 유시가 있었다며 조사위 해체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우승가회는 9일 오후 태고종립 선암사를 방문해 혜초 스님을 예방했다.

보우승가회 사무총장 능해 스님은 "종정스님께서 누가 됐든 '종단'을 위해 협조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내용의 유시를 내리셨다"며 "유시에는 조사위 해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 · 고발 취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사위는 해체하되 고소 · 고발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종정스님께서 총무부원장에 수열 · 지홍 스님을, 총무부장에 나를 지목해 종단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보우승가회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토지매매, 울산 옥룡사 등과 관련 3건의 고소 ·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우승가회에 따르면 운산 스님은 3월 31일 진행된 임시중앙종회와 4월 8일 진행된 종무원장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 문제 등 대외적인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일을 새롭게 선출될 부원장 및 집행부에게 맡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 태고종의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진성 기자

조계종 종무행정 전산화 완료

관련 증명 본사 발급

조계종 총무원과 각 지방교구본사를 네트워크로 잇는 종무행정 전산화가 완료돼 스님들은 물론 불자들의 사찰관련 업무를 각 교구본사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전 교구본사로 확대 보급해 사찰 및 승적관련 증명을 각 교구본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월 6일 밝혔다.

조계종은 2006년부터 중앙종무행정기관과 지방종무기관(교구본사 등)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8년 5개 교구본사(월정사 동화사 불국사 해인사 송광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 보급으로 종무원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해 발급 받던 △사찰용 증명서 발급, △사찰현황 검색 및 출력, △각 교구별 재적스님에 대한 증명 등의 발급이 각 교구본사마다 가능해졌다.

또 총무원의 사찰관련 현황자료를 교구본사가 실시간 열람 · 출력할 수 있게 돼 종무기관별 업무불균형 해소는 물론 교구본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전법회관 개관식 미래불교의 허브가 될 조계종 전법회관 개관식이 4월 8일 봉행됐다.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택기도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제막식,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경과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의 축사, 표창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계율학개론'

조계종 편찬위 개최

출가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의 밑거름인 계율(戒律)에 관한 종단본 교재가 편찬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계율학개론> 편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관 스님(前 해인사 해인율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 편찬위원에는 도일 스님(송광사 송광율원), 도일 스님(파계사 영산율원), 덕문 스님(통도사 영축율원),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원영 스님(불학연구소)이 위촉됐다.

종단본 <계육학개론>은 2010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편찬된다. 강원 등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쓰일 이 책은 신국판 350쪽 분량으로 계획됐다.

조동섭 기자

실천승가회 조계종단 쇄신 촉구

1994년 조계종 개혁을 이끈 4 · 10전국승려대회 15주년을 맞아 종단의 쇄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법안, 이하 실천승가회)는 4월 10일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은 반드시 계승돼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종단 내부의 분열과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구태로 인해 1994년과 다른 한 차원 높은 혁신을 요구는 실정"이라며 종단 차원의 종풍 쇄신과 변화를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와 이후 종단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종단개혁 15주년을 종단 구성원 모두가 점검 · 평가하는 참회와 정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개최

조계종 원로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3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前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의장 선출건과 신임 원로의원 선출건이 논의된다. 제18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개정안에 대한 인준도 있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특별분한신고 5월 1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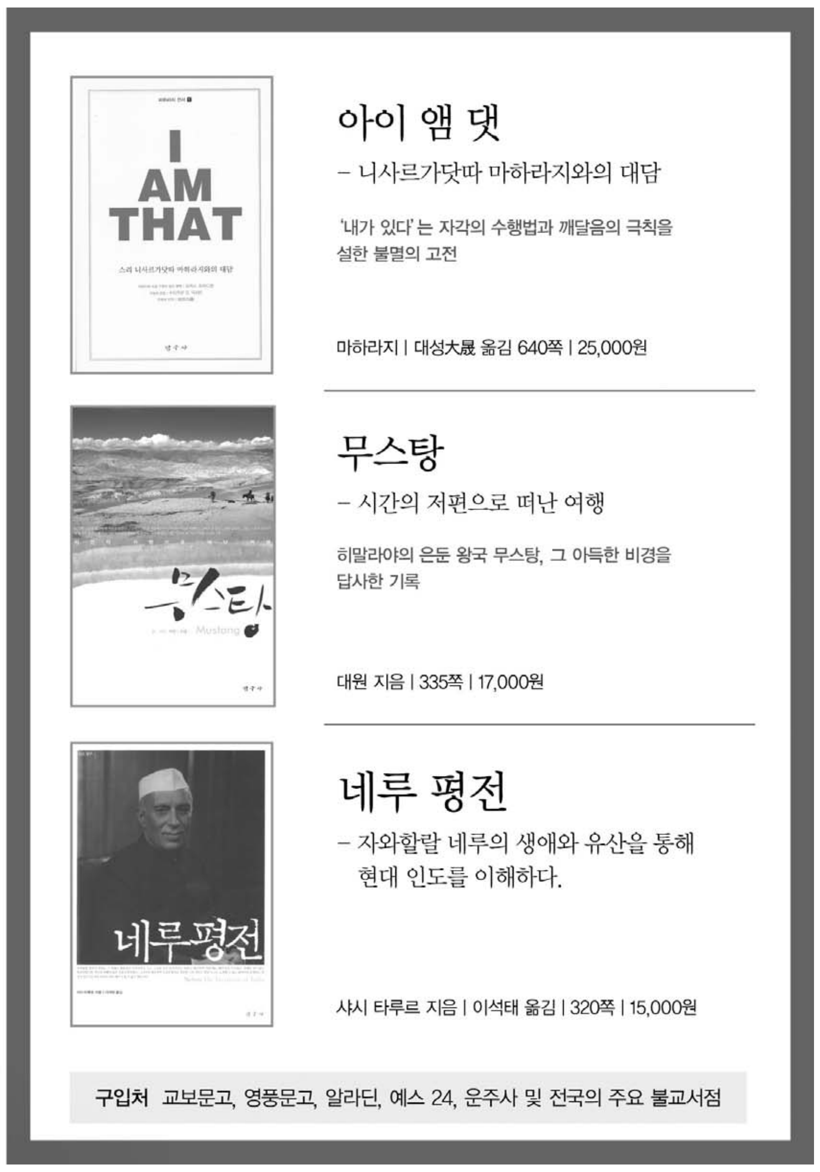
2000년 미신고 승적 말소 스님 대상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5월 11~20일 특별분한신고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분한신고는 1990년 분한신고를 필했으나 200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거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이 대상이다.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발소된 스님들은 1581명이다. 2007년 기준 조계종 전체승려 1만3571명 가운데 11.6%에 달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2010년 분한신고 이전에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시행기간을 놓친 결격 없는 스님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분한신고를 원하는 스님은 신고인의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에 신고하면 된다.

조동섭 기자